



지상파 DMB 사업권 획득!

DMB 준비팀 출범, 개국 준비 본격화



YTN DMB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즉 지상파 DMB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YTN DMB를 포함한 6개 사업자를 지상파 DMB의 허가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3개사 선정에 6개 사업자가 몰려 2대1의 경쟁률을 보인 비지상파 TV사업자군의 심사 결과, YTN DMB와 KMMB, 한국 DMB-CBS 컨소시엄 3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YTN DMB는 천점 만점에 773.35점을 얻어 2위 KMMB (709.36점)와 3위 한국 DMB(702.49점)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단연 1위의 월등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2위와 63.99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기록한 것은 사업권 심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개사 탈락이라는 경쟁을 벌였던 지상파 TV사업자군에서는 KBS와 MBC, SBS가 선정되면서, EBS가 고배를 마셨다. YTN DMB는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되는 지상파 DMB의 사업자로

한국의 본격 이동방송 시대를 당당히 이끌게 됐다. YTN은 특히 다음 달 본방송을 시작할 TU미디어의 위성 DMB에 뉴스채널을 공급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이동방송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반기 본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YTN DMB의 채널은 모두 4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채널은 비디오채널이 YTN 플러스, 오디오채널은 TBN 교통방송과 '썬티오플러스', 데이터채널 YTN 프리미엄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비디오채널 YTN 플러스는 뉴스와 재미를 함께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채널이다. YTN이 공급할 생생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하면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오락 프로그램을 더해, 젊은이들도 즐겨 찾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방송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언제나 주요 뉴스와 속보, 날씨 등 주요 정보를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채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교통정보 오디오채널 TBN 교통방송은, 전국 7개 도시에서의 교통방송 운영 경험에 DMB의 첨단 기능을 더해 문자 교통정보나 현장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통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음악전문 오디오채널 썬티오플러스는 듣기만 하던 기존 FM라디오의 한계를 넘어, 방송되는 곡목, 가사 등 음악의 부가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서 이른바 '보는 라디오' 시대를 열 것이다.

독립형 데이터방송 YTN 프리미엄은 무선인터넷의 아성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시간 뉴스나 날씨 정보는 물론 재미있는 유머나 교육, 영화,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압축 제공한다. 무선인터넷의 막대한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시청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된다. 특히 TBN과의 협력으로 제공될 MPEG 서비스는 요즘 인기 있는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정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더해, DMB 단말기를 가장 강력한 교통정보 단말기로 변신시키게 된다.

그러나, YTN DMB가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이동방송 시장의 조기 활성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특히 기존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대결로 표출되고 있는 지상파 DMB와 위성 DMB와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상파 DMB에서 벌어질 기존 지상파 3사와의 맞대결 또한 우리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익성과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함께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 역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특히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방송을 위한 기술 규격이나 관련 법규 등 사회적 주변 여건을 성숙시켜야 하는 것 또한 남에게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따라서 지상파 DMB 사업권의 획득은 한국 방송 발전을 위해 10년을 고군분투해 온 YTN에게 눈 앞에 다가온 차세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선두 경쟁그룹으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입학허가서'에 불과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치열한 경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학증서'와 '상장'이 될 수도 있고, '학사경고'나 '퇴학명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대적 조직 개편 단행

YTN은 4월 1일 편성심의실과 제작국, 타워사업국, 전략기획국 등 4개 실국을 없애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YTN 조직은 1실 8국 체제에서 1실 5국으로 축소됐다. 제작국의 1,2팀은 제작팀으로 통합돼 보도국 소속이 됐고 기존 편성심의실의 편성운영부도 보도국으로 옮겼다. 기존 전략기획국의 업무는 신설되는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방송심의팀과 홍보팀도 기획조정실로 옮겼다.

타워사업국은 타워공사로 영업부문이 없어짐에 따라 타워운영부로 축소돼 경영관리국에 편입됐다. 또 자회사 광고업무가 본사에 통합됨에 따라 마케팅국이 4개부로 확대 개편됐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연구소가 신설됐다.

YTN은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YTN은 국장급 인사에 이어 4월 7일 간부와 사원인사도 단행했다.

봄철 프로그램 편성 개편

YTN이 오는 11일 새벽 5시부터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주중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뉴스 7-9(세븐-나인)'을 신설해 그날의 주요 뉴스와 함께 교통 정보,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방송한다. '뉴스 7-9'은 15분 뉴스 휠 방식으로 1부에서 8부까지 2시간 동안 와이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대에는 '경제와이드'를 신설해 국내외 경제 뉴스의 흐름을 분석하고 주식, 부동산, 금융 등 재테크 관련 정보도 자세하게 전달한다. 시의성 있는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는 박주현 변호사의 사회로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5분부터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해외 동포들의 삶과 현안들을 현지통신원을 통해 알아보는 '글로벌 코리아'는 1주일에 2편(매주 목요일 오후 1시25분, 토요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대 편성된다.

이번 편성개편은 LIVE 뉴스를 확대하고 DMB 특성에 맞는 뉴스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4월호 목차

- 121 ▶ 특별기고 - DMB시대의 개막과 방송시장의 변화
- 131 ▶ 미리 가 본 YTN DMB의 세계
- 141 ▶ YTN에 바란다③ -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활동
- 151 ▶ 시청자 리포트 - LNG수송선에서 보는 YTN
- 161 ▶ 특집 제작기 - 현장프로 임진강/자원 그리고 미래
- 171 ▶ 특파원 귀국 보고서 / 새내기 사건기자 수습기
- 181 ▶ 개국 10년, 공채 1기가 꿈꾸는 YTN
- 191 ▶ 대학생 영상공모전 - 내 발 아래 세상
- 201 ▶ 'YTN인터내셔널' 출범 1년 / 해외통신원에게 듣는다

특별기고 - DMB 출범 의미와 전망

DMB시대의 개막과 방송 시장의 변화



조은기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이러한 양대 산업이 최초로 직접 만나 화학적인 결합, 해체가 이루어지는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DMB 서비스는 우선 이동 환경에서 동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고정 수신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방송 시장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이동 수신 환경이라는 말이 뜻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첫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상기가 고정 수신인 경우와는 전혀 다르고, 둘째 프로그램 시청의 주시청시간대가 상이하고, 셋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시청하는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유형이 전통적인 방송과는 매우 구별되는 형태를 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우리들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기사가 틀어 놓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 대신에 휴대 전화를 켜고 무엇인가를 시청할 것이다. 혹은 출근길 교통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운전대 옆에 붙어 있는 7인치 LCD 모니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거나 들을 것이다. 그 시간 집에서는 남편을 출근시킨 주부가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것이다. DMB 서비스가 없었던 때에는 점심 식사를 일찍 끝마친 후 습관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였던 직장인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는다.

DMB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폰을 이동 통신 사업자들은 통신 요금 서비스 할인 패키지에 묶어서 마케팅하

고, 모 자동차 회사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에 DM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7인치 액정 TV를 아예 기본 품목으로 장착하여 출고한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자사의 DMB 서비스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드라마를 제작할 때 근접 촬영 위주의 DMB 버전을 따로 만든다. DMB 단말기를 통한 홈쇼핑, 주문 결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

이상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DMB 서비스는 기존의 이동 통신 시장, 방송 시장, 인터넷 시장, 광고 시장, 프로그램 시장 등 넓은 의미의 방송, 통신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DM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펼쳐질 풍경과 변화에 대한 예상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는 DMB 서비스가 기존의 이동 통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이동 전화 단말기는 기능적으로는 세 가지의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음성 이동 전화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DMB 서비스 안테나가 그것이다. 음성 이동 전화와 무선 인터넷 기능의 안테나는 이미 통합되었으나 2.3Ghz 무선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이동 전화 수신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은 지금의 형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질 것이고 DMB 서비스와의 결합 역시 대단히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세 가지 기능의 안테나 중 DMB 안테나가 없다는 것은 단지 DMB 서비스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패키지로 전체 서비스가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DMB 서비스 라인이 없다는 것은 가입자 이탈로 인하여 곧 음성 전화 시장과 데이터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동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일 경쟁 사업자의 DMB 서비스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경우 DMB 시장이 아닌 기존의 서비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의 미디어 시장, 즉 수신료 형태의 소비자 지불과 광고 시장의 변화이다. 개념적으로 이동 수신과 고정 수신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시

장, 즉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부연하자면 현재 방송의 시청률은 재택률을 기반으로 하고, 적어도 30인치 TV가 있는 거실에서 2인치 수신기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DMB로 인하여 고정 수신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개념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현재의 광고공사 체제하에서 특히 광고로만 운영되는 지상파 DMB의 경우 초기 낮은 가입률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간접적으로 기존의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직접 지불 역시 가계의 정보통신 지출의 규모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유료 방송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콘텐츠 시장, 즉 요소 시장의 변화이다. 앞서 예들었던 것처럼 최대 손바닥만한 수신기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전철 안이나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우리가 집에서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보는 콘텐츠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지상파DMB와 위성DMB가 초기부터 경쟁하는 상황에서 'DMB적인 콘텐츠'의 제공 여부는 경쟁에서 지고,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초기부터 DMB 전용 콘텐츠가 주축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DMB 콘텐츠는 현재의 방송 콘텐츠, 혹은 무선 인터넷 콘텐츠와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매우 다른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콘텐츠 제작의 가치 사슬 역시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DMB에만 존재하는 고유 콘텐츠의 핵심은 기존의 방송, 혹은 인터넷 콘텐츠와 데이터의 결합에 있다. 문제는 지상파 DMB의 경우 6개로 쪼개진 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동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DMB는 사업자 선정 이후가 더욱 중요하고,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생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YTN 단신

사장과의 대화



사장과의 대화'가 3월 29일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표완수사장은 YTN이 DMB사업권을 획득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지상파 사업자가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사장은 또 현재 YTN의 핵심과제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광고영업 확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타워 리노베이션, YTN경영상황, 바람직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대화가 이뤄졌다.

'YTN사이언스+ 과학전집' 출판 기념식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건배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진대제 정통부장관,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표완수 YTN사장,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YTN 사이언스+ 과학전집' 출판 기념식이 4월 1일 YTN 타워 16층에서 열렸다. 개국 10년을 맞아 발간한 'YTN 사이언스+ 과학전집'은 우주과학, 생활과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시네마과학 등 모두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총 50권의 책과 인기를 끌었던 '역사속 과학' 등을 10장의 DVD로도 만들었다.

고광남(高光南) 상임이사 선임



YTN은 3월 28일 YTN 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임이사로 고광남 국장을 선임했다.

고광남 상임이사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YTN 보도국장 겸 전략기획국장(이사대우)을 역임했다.

또 YTN은 비상임이사에 박성목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 집행부

행장을, 사외이사로 장지인 중앙대학교 경

영대학장, 박성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 경영대학원장, 박종만 전 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을 선임했다.

미리가본 YTN DMB의 세계

YTN DMB 매니아 김 이사의 하루



기정훈 (전략기획국)

2007년 7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 10분.

“이번에 정착할 역은 역삼, 역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한 홍보기획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김명준 씨는 지하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다시 DMB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다. DMB방송의 대표 채널로 자리잡은 YTN플러스에서는 친숙한 앵커가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고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됐다는 뉴스에 이어, 바짝 달아오른 대선 정국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연동형 데이터 방송을 뜻하는 D버튼을 눌렀다. 내일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떠날 김 이사의 관심은 남해안의 날씨, 북상하는 제7호 태풍 나비가 일본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뉴스에 안도하며 김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전 9시 10분.

어제 밤 술자리가 과했나 보다. 화장실에 신문을 들고 가던 얘기는 옛말. 김 이사는 새벽에 DMB휴대폰에 예약 다운로드 돼 있는 조간신문 3개를 화장실에서 훑었다. 신문 여러 개를 어디나 들고 다니는 셈이다.

‘DMB 때문에 변비가 심해지는 건 아닌가 몰라...’

오전 10시 20분.

“딩동~ 강의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김 이사의 노트북PC에서 귀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DMB 수신장치가 내장된 김 이사의 노트북은 DMB 데이터방송으로 제공되는 ‘오늘의 일본어 강의’를 방송 예정시각에 자동 수신해 알려주도록 돼 있다. 클릭 한번으로 강의 내용을 열어 훑어보던 김 이사에겐 DMB 노트북은 화면 아래 스크롤 창으로 또다른 정보를 전해왔다. ‘YTN : 만8천2백원 : 14.98% ↑’ 김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또다시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 팔 때가 아니지.’ 일본어 공부를 마저 마친 김 이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전자결제 창을 열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 약속을 위해 택시를 잡아탄 김 이사는 또다시 DMB의 도움을 받았다. 7인치 화면의 차량용 DMB 단말기는 고정된 길만 알려주는 보통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차원이 다른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인 TPE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남대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 소식과 함께, 가장 빠른 우회도로 정보를 알려줬다. 기사가 추천 도로 쪽으로 차를 돌리며 YTN DMB플랫폼의 오디오채널인 TBN으로 채널을 맞추자, 단말기는 서울 시내 각 구간의 운행속도를 보여주는 스크롤 화면과 함께 요즘 최고 인기라는 한 여가수의 섹시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오후 2시 05분.

김 이사는 건평 8만 7천평으로 국내 최대 건물이라는 신도림역 민자역사 완공 축하 행사 준비회의를 끝낸 뒤, DMB휴대폰을 들고 회사 앞 공원을 찾았다. YTN DMB의 오디오 채널인 씨티오 플러스는 신인그룹 ‘Y매니아’의 히트곡을 들려주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과 어

울리려면 최신 노래를 마스터해야지.’ 김 이사는 화면에 뜬 가사를 보며 흥얼흥얼 신곡 연습에 몰두했다. 회사로 들어서던 김 이사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방금 방송된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돼 휴대폰에 저장됐다.

오후 5시.

‘딩동’ AE 박 과장으로부터 온 휴대폰 메시지. ‘21시 D사 최 사장 YTN+에 출연 예정 - # 버튼 누르면 녹화 예약.’ ‘고객사인 D사의 최 사장 출연이라면 직접 모니터링해야지.’ 김 이사는 DMB폰의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녹화 예약을 끝냈다.

오후 8시 20분.

직원들과의 회식. 이달초 열린 월드컵 2회 연속 4강 신화 1주년 기념행사로 애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얼큰하게 술이 서너 순배 돌아갔을 무렵, 계산대 위 텔레비전이 드라마 화면 위로 속보 자막을 띄웠다. ‘북 김정일 위원장, 내달 서울 방문.’ 누가 먼저랄 것 없이 DMB폰을 각자 꺼내들고 YTN플러스로 채널을 맞췄다. 평양을 방문 중인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에 이어, 각 계 전문가들이 남북 화해 무드에 따른 정치·외교·경제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었다.

오후 10시 30분.

퇴근길 버스 안. 김 이사는 예약 녹화된 최 사장의 대답을 시청한 뒤, YTN 프리미엄으로 채널을 돌렸다. 데이터채널 회원에게 기본 제공되는 카드게임을 즐기던 김 이사는 역시 DMB로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휴가여행 중에 묵을 호텔방으로 꽃다발 한아름을 주문한 것이다. 주문이 완료됐다는 화면이 사라진 뒤엔 YTN프리미엄의 미아찾기 정보 덕에 4 살배기 딸아이를 찾았다는 한 30대 엄마의 감격스런 인터뷰 내용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사원 동정

이계성 부장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 받아



이계성 부장은 방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 7일 케이블TV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한정호 기자 연구저술 지원받아



한정호 기자(제작2팀)가 한국언론재단 연구저술 지원을 받는다. 한정호 기사는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어 약어들을 한데 모아 과학의 잣대로 재미있게 분석하는 ‘알파벳으로 배우는 과학’이란 책을 쓸 예정이다.

정진웅 차장 YTN 방송기술인 협회장 선출



방송기술인협회는 2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진웅 차장(중계부)를 제 8회 YTN 방송기술인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게시판

포상

- ▶ 특등상 은상 최재민(사회1부), 고민철(영상취재부) ‘정영근 의원 호텔방 소동’ 보도 / 김정현(사회1부) “‘타워팰리스’는 먼학교가 좋다?” 보도
- ▶ 특등상 동상 왕선택·김기봉(정치부) ‘2004 국방백서’ 단독입수 보도 / 김호성·김정현(사회1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부정 의혹’ 보도 / 심정숙(사회1부), 이성모(영상취재부) ‘국회 잔디구장 교체 파문’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 ‘자원 그리고 미래’ 팀 이승훈(경제부), 김준영(사회1부), 김대경·박정호(영상취재부) YTN 개국 10주년 기념 “자원 그리고 미래”
- ‘떠오르는 동북아시아’ 팀 박철원·이강문(기동취재팀), 홍문표(특집영상팀) 외 3명 YTN 신년특집 3부작 “떠오르는 동북아 시대”
- ▶ 공로상 조승희(해외방송팀) YTN인터내셔널 성공적 운영과 해외통신원 확대 / 안치용(해외통신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유언장 입수’ 보도 / 장승욱(제작기술부) AUTO CAD를 이용한 송출System 도면화 작업

입사

- 최수지, 김하늘, 김지연, 강태식, 이주현 영상편집팀 3. 7 / 김진희 부국장대우, 박세운 차장, 정기호·김선기 차장대우, 한경민, 안성훈, 김성운, 성명현, 송영경 마케팅국 3. 15 / 노일환(영상편집팀) 3.21
- ▶ 퇴사 조미선(편집2팀) 3. 4 / 최수지(영상편집팀) 3.11 / 차윤조 차장대우(국제부) 3.15
- ▶ 전보 윤경민 동경지국장 2. 14 / 강철원 편성심의실 사사편찬위원 3. 2 / 진상옥 기획조정실장직대, 김관상 미디어

- 국장, 김백 취재담당 부국장, 황성수 제작담당 부국장, 김사모(국장대우), 박득송(부국장 대우) 스크롤뉴스팀, 이한상(국장대우) 방송심의팀 방송심의위원 4. 4
- ▶ 부음 최정호(청주지국) 부친상 2. 27 / 전봉규(제작기술부) 빙부상 3. 6 / 안이택(총무부) 빙모상 3. 11 / 심종남(기획관리부) 부친상 3. 28
- ▶ 결혼 최진아(편집2팀) 3.27 / 최유석(경영관리국) 4.10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활동 기대...



서범석 한국광고학회 회장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경제성장을 둔화로 인하여 광고 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광고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이러한 케이블텔레비전의 성장을 주도하는 채널이 YTN 이라고 할 수 있다. YTN은 초기부터 뉴스전문채널이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케이블 텔레비전 광고매체의 특성인 목표 소비자층의 명확성과 가입자의 구매력에 의해 광고회사 매체기획자들에게 효과 있는 매체로 주목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YTN도 상당기간 광고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보너스광고의 출혈이 있었으

며, 이러한 광고 영업 전략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YTN의 매출구조에서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를 수행하는 광고영업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텔레비전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가 케이블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며 실제적으로 광고영업에 필수적인 케이블텔레비전 광고효과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YTN 매체의 광고효율성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분석 자료는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물론 현재의 광고팀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잘하고 있지만, 발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 해 볼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YTN의 광고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YTN의 자체 광고영업팀 보다는 자회사 형식의 전문 판매미디어랩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광고산업의 시장구조는 다국적 광고회사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광고의 글로벌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매체 자료의 분석과 현재의 판매구조에서 다양한 형식의 판

매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매미디어랩의 운영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YTN의 방송광고 판매를 위하여 광고회사의 매체담당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철저한 광고 전문 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는 YTN에 대한 기초적인 매체자료뿐 아니라 광고제품과 광고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맞춤형 매체제안을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YTN의 특수성을 살려 기업의 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프로모션 전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현재의 YTN 케이블 방송광고 가격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YTN의 경우 시청률 연동제를 통한 GRPs 기준의 다양한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광고산업의 국제화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광고 판매방식과 영업 전략을 전개할 때 광고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

지진해일 소식 미리 알려준 YTN뉴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 해운 소속 한진 무스카트(Hanjin Muscat) 호 삼등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정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요 YTN 식구들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띄웁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배는 중동 오만에서 한국까지 LNG를 수송하는 LNG CARRIER입니다. 전체 길이 280M로 63빌딩보다 조금 더 길며, 총톤수 약 93,000톤으로 겨울대비 수도권 모든 가구가 약 2-3일분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한국에 나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고국의 그리움은 누구보다 많지만 저희가 수송한 LNG로 우리 가족, 우리나라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약조건 속에서도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지 YTN을 위성으로 볼 수 있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도 24시간 쉬지 않고 운항되는 것이기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새벽이나 대낮이나 언제나 YTN으로 한국 소식을 접할 수 있기에 정말 좋습니다. 무더운 곳을 향해 하다 보니 아무래도 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루일과를 마치고 YTN을 보고 있으면 고국의 향수도 달래고 하루 피로가 싹 가시곤 합니다.

그리고 생방송이고 실시간 뉴스가 업데이트 되다 보니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한국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좋고 얼마 전 쓰나미에 의한 해일 피해가 있었을 때 저희가 마침 그 근처 말라가 해협을 지나고 있었는데 YTN의 소식 덕분에 본선 안전 운항은 물론 타 선박과도 그 정보를 공유하여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 소식도 단지 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심이 더 갑니다. 얼마 전 북한동해에서 발생한 침몰사고만 해도 실종자나 사상자들이 저희 동기고 선후배고 하기에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YTN이 보다 빠르게 그런 소식들을 전해 주시어 저희도 그 소식을 통해 멀리서나마 명복을 빌며 마음도 추스르고 동일 사고 미연 방지 등 발 빠르게 대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날에 대 쿠웨이트전 축구경기가 있었는데 언

제나 처럼 못 보는구나 하며 아쉬워했는데 YTN에서 자막으로 계속 보내주셔서 이곳 모든 분들이 TV 앞에 다 모여 자막이 바뀌며 한국이 골 넣었다는 소식을 들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좋아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저희가 짧은 휴식시간에도 자막을 통해 한국 소식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막뉴스에서 의미 전달이 잘 안되거나 이중으로 되는 경우를 가끔 느낍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뉴스를 다 알고 보는 경우와 처음 딱 보는 경우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포 하나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엔 뉴스뿐 아니라 다른 정보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 같은 젊은 사관들은 연예 파일이나 씨네24 같은 연예계 소식을 좋아하고 중간 중간 보내주시는 뮤직비디오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한국의 유행에 조금이라도 뒤쳐지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라고 해도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비록 육상에 비해 몇 안 되는 시청자이지만 멀리서나마 매우 잘 보고 있고 YTN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월 25일 따뜻한 봄소식을 기다리며 인도양에서
전정 일(한진해운 항해사)

스페셜 '현장르포, 임진강' - 제작기



아름다운 경치와 수천년 역사유적의 보고



김동민 (기동취재부)

'임진강'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물난리가 많이 나는 강, 북한과 최전방 지역에 흐르는 강' 이 고작일 것이다. 연천에서 파주로, 그리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앞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군사보호 지역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은 분단의 비극으로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었다. 또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수많은 역사유적은 강줄기를 따라 조용히 숨 쉬고 있다. 유적은 육군의 협조로 취재할 수 있지만 촬영하기 어렵다는 희귀한 새와 동물들은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ENG

가 아닌 6mm 카메라로... 이희수 VJ를 포함, 취재팀은 총 2명. 6mm 카메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는 종종 불안을 설렘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난관은 시작부터 찾아왔다.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독수리와 같은 겨울 철새들, 강 건너와 길 너머에 새들이 있었지만 취재팀이 갖고 있는 망원렌즈로는 클로즈업이 불가능했다. 더 좋은 망원렌즈와 더 무거운 삼각대가 있어야 좋은 그림을 잡을 수 있었다. 장비 보강을 다시 해야만 했다. 자연 다큐 제작자는 '새들을 촬영할 때는 오늘 500미터, 내일 300미터, 모래 200미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야한다'고 충고했지만 YTN은 프로그램도 속도전이다. 이 속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임진강 곳곳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주민들과 환경운동가, 그리고 군인들 덕분이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어디 있는지, 고라니는 어디에 자주 나타나고 임진강의 일출과 일몰은 어디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알려줌으로써 취재팀이 '헌팅'에 들어야 하는 시간을 줄여줬다.

후전선 철책을 넘나드는 재두루미들의 멋진 비행, 마치 취재팀을 기다렸다는 듯 적당한 시기에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미들, 날아가다 공중에 멈춰서 먹이를 찾는 황조롱이, 두루미들 앞으로 뛰어가는 멧돼지, 독수리의 먹이를 노리는 까마귀, 고라니를 쫓아내는 두루미...

임진강의 자연은 매 순간 경탄이었다. 경탄을 자아내는 장면은 하루에 한 번쯤은 있었고 그 장면은 일출 전부터 일몰 후까지 민통선을 헤매던 취재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다.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원고를 쓰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던 어민들이 '임진강의 겨울은 눈이 올 때 가장 멋있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이 상태로 계속 눈이 오면 길이 얼어서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또 임진강으로 달려갔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캄캄한 밤에 도착할 뻔했지만 운이 좋아 강 위로 눈이 내리는 멋진 풍경을 잡았다. 눈도 미리 기다려서 촬영해야 한다지만 기동성으로 또 만회했다.

그러나 갑자기 떠난 출장으로 장갑도 모자도 우산도 없이 촬영하던 VJ는 그날 밤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며 감기 몸살에 시달렸다. 임진강의 겨울바람은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기 때문이다.

40~50분의 시간에 겨울철 임진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수 천 년 동안의 역사가 담겨 있는 많은 유적지들을 물론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분단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임진강은 언젠가 통일의 역사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임진강에는 홍수조절지(댐) 건설이 추진 중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도 임진강의 자연은 지금처럼 아름다울까? 그 많은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은 그때도 임진강에 살아 있을까?

창사 10년 특집 '자원, 그리고 미래' 제작기



“어, 여기서도 YTN이 나오네요?”



김준영 (사회1부)

지난해 12월 31일, 다사다난했던 2004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YTN 창사 10년 특집 '자원, 그리고 미래' 취재진은 머나먼 열사의 땅 카타르에 정박한 6만 톤급 우리나라 LNG 운반선에 올랐다. 자원 전쟁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다.

이것, 저것 취재를 하다가 YTN 방송이 나오는 수상기를 봤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아, 여기서도 YTN이 나오네요?” “네,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YTN을 통해 국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승무원들의 말에 순간 뿌듯함을 느꼈다. 곧바로 이어진 한 마디. “참, 요즘 동남아시아 쓰나미 때문에 무척 시끄럽죠. 당일 저희가 진양지 근처에서 항해 중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인도양 수심이

워낙 깊어서인지 그곳에서는 막상 파도가 한 번, 두 번 치는 정도, 그렇게 느꼈죠.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YTN 방송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았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YTN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모처럼 맛볼 수 있었던 뜨끈뜨끈한 라면을 많이 먹어서인지, 우리 방송 때문인지 배에서 내릴 때 포만감을 느껴졌다.

카타르에서는 말로만 듣던 알-자지라 방송국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도국을 비롯해 방송국 곳곳을 둘러보는 정도였다. 중동 국가 분위기가 나면서도 웬지 자유분방함이 느껴졌다. 오후 시간 이어서인지 생각보다 기자들이 눈에 많이 띄진 않았다. 우리처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으리라. 조직 구성은 우리와 비슷했다.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등등. 일본에는 사무실이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특파원이 없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앵커가 직접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본사 옆에 새 사옥을 짓고 있었다. 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세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창사 10년을 맞아 새 집으로 이사한 우리처럼 말이다.

이런 좋은 기억도 있지만 어처구니없었던 일들도 잊을 수 없다. 먼저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베트남 외무성 직원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우리가 원치 않는에도 외국 취재진이 오면 에스코트를 한다고... 말이 에스코트지,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우리를 감시하는 거란다. 나중

에 요구한 돈은 무려 미화 6백 달러. 그동안 밥도 사고, 호텔비도 냈는데... 화가 났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시내 전경을 촬영하려고 높은 곳을 찾았다. 눈에 띈 곳은 시티 타워. 우리의 서울타워와 비슷하게 생겼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한단다. ‘그래, 뭐 입장료는 내야지.’ 그게 아니었다. 촬영료로 2백 달러를 내란다. 정식 영수증까지 있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이 “우리도 돈 받아야 돼.” 서울 전경을 찍는데 서울타워만큼 좋은 곳도 없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일종의 수익 사업을 하자는 거다.

'자원, 그리고 미래', 이번 특집의 제목이다(사실 제목하나 짓는데도 머리가 지끈지끈했다). '총(?)'을 맞고 특집팀에 들어갔지만, 사실 막막했다. 매일 1분 20~30초 짜리 리포트만 하다가 30분짜리 제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암담하기만 했다. 멍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시작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호주를 거친 출장길이었다.

최충우돌, 우여곡절 끝에 3월 초 방송이 나가자 속이 다 후련했다. 개인적으로 방송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더 잘 제작할 수 있을까? 글썽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아무튼 승훈, 대경, 정호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

동경특파원 귀국보고

YTN

“강형! 얼마 전 인터넷에서 얼굴봤어”



강철원 부국장대우 (사사편찬위원)

2002년 2월 11일, 그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도쿄로 날랐다. 집 사람은 서울에서 직업이 있었고 큰 아이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1인 둘째 아이만 도쿄에서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숙소는 신주쿠 오쿠보 도오리에 있는 한국인 민박집. 가장 급한 일은 앞으로 3년 동안 살 집을 얻는 것이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싸구려 민박집에 임시 숙소를 정한 것은 느긋한 마음으로 서둘지 않고 흥정해야 좋은 집을 값싸게 구할 수 있다고 일본에 사는 친구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맘에 드는 집을 구하기 위해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다.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부동산 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아파트는 월세 40만 엔이 넘는, 내 주제에는 좀 비싼 물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불경기여서 아파트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였고 빈 집이 많이 나와 있었다.

난 친구의 조언대로 값을 사정없이 후려쳐서 30만 엔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계약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싸구려 민박집 명함을 건넸다. 내 기세에 놀랐던지, 부동산 회사 직원은 다음날 30만 엔에 계약하자며 연락을 해 왔다. 이렇게 해서 난 일본인과의 기싸움에서 먼저 1승을 올릴 수 있었다.

방송사 도쿄 특파원의 하루는 새벽 4시 20분에 기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건 6개 신문을 살살이 훑어 꺼리가 되는 것을 찾아낸 뒤 숙련된 솜씨로 15분만에 원고작성, 그리고 국제부 편집실로 전화 걸어 녹음 완료. 6시 뉴스출발에 들어가려면 늦어도 5시 반까지는 이런 작업을 끝내야 한다. 처음 한 달간은 보이는 것이 모두 리포트 꺼리였다. 닥치는 대로 부르다보니 새벽에 한 건, 오후에 또 한 건 부르는 게 보통이었다.

특파원단 사이에서는 ‘초짜’가 이렇게 하루 2건 해치우는 것을 너그럽게 봐준다. ‘고참’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도 ‘수습 특파원’의 눈에는 엄청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두 달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몸에 약간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거기에다 일주일에 한두 번 ‘술 야근’까지 하게 되니까 엔진 성능이 급속히 떨어졌다. “안되겠다” 싶어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음... 아주 좋은 말이야. 생존을 위해서는 맘을 흘러야해!” 그 때부터 오전 11시 사무실에 출근하면 무조건 헬스클럽으로 향했다.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12에 놓고 30분간 뛰 다음 20분간 스트레칭, 샤워 1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몸무게가 90킬로그램에서 76킬로그램까지 줄었다. 76이면

대학시절 몸무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육체가 근육질이 아니고 ‘물살’ 이었던 말인가? 조상님이 약간 원망스러웠다.

건강문제도 해결됐겠다. 이제 남은 것은 취재장비 문제였다. 도쿄 지국에 있는 취재장비는 볼펜과 수첩, PC가 전부였다. 부자 회사의 카메라와 편집장비, 전송시스템을 보니 정말 부러웠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얼굴없는 특파원으로 임기를 끝낼 수는 없다!” 여기 저기 수소문해보고 우리 회사 디지털 기획부 전도, 박모, 강모를 괴롭혀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실천, 의지였다. 다행히 베이징 지국에 편집/전송 소프트웨어가 깔리고 6밀리 카메라도 지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도쿄도 가능하겠구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12월 14일, 드디어 내 노트북에도 편집 프로그램인 피나클과 전송 프로그램인 알 FTP를 까는데 성공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디지털 기획부 박형일씨가 “김맹”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술지도를 해준 덕분이었다. 6밀리 카메라로 온마이크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화면을 편집한 뒤 전송했다. OK! 박형일씨로부터 “완벽”이라는 메시지가 왔다. 그로부터 연말까지 부임 초기 ‘초짜’ 시절처럼 정신없이 몇 꼭지를 보냈다. “강형! 얼마 전 인터넷에서 얼굴봤어” 그제서야 도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진짜인지, 인사치레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TV 기자로서 자존심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대학생 영상공모전 대상 제작기

YTN

“내 발 아래 세상”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성배, 윤상현, 김은호, 김지혜, 조선욱.

2004년 12월, 방학이 다가왔다. 4학년이 되기 전 무언가 해보고 싶었다. 그때, 한 친구가 YTN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에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과 여러 가지 구상해놓았던 작품이 생각났다.

응모요강에 ‘꿈, 꿈, 정’이라는 주제가 정해졌고 다큐멘터리 장르였다. 솔직히 난감했다. 단편영화만 구상해왔는데 다큐멘터리는 처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서 읽었던 짧은 기사가 생각이 났다. 미대교수가 된 구족화가에 대한 기사였고, 굉장히 감명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소재가 됐고 바로 팀을 구성했다. 소재는 정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하고, 독특하고 새로

운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나흘 가까이 회의를 하다가 정해진 것은 ‘그림 같은 다큐멘터리’ 이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그림같이 맑은 사람이어야 하고, 꿈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했다. 우리는 주인공을 섭외하기 위해 물어 물어, 방배동에 있는 ‘한국구족화가협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윤정 화가로 결정되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이윤정 화가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우리의 기획의도와 목적을 설명했고, 어렵게 출연허락을 받아냈고, 동두천에 있는 화가님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윤정 화가님을 직접 만나서 구성안과 콘티, 인터뷰내용을 전달하고, 촬영 스케줄을 계획하기 위해서였다.

1급장애로 힘들게 움직이시는 분이기엔 간신히 하루의 촬영 스케줄을 만들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3일 정도의 촬영 분을 이틀에 다 촬영해야하기에 구성과 스토리 보드가 상당히 중요했다. 덕분에 누락된 촬영분도 많았지만…….

하루를 이렇게 모여서 스토리보드를 짜고 다음날 새벽 동두천에서 모인 우리 팀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정해진 스토리보드에 맞추어 촬영을 했다.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이윤정 화가님의 작은 몸짓 하나 하나 담기는 부족할 만큼 힘든 촬영이었다. 가장 신경 쓴 장면은, 이윤정 화가님이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 이었다. 감동을 받

았다. 장애를 뛰어넘어 그림에 자신의 꿈을 건 화가님의 모습에, 서로에게 말도 걸 수가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이렇게 감명 깊고, 힘든 촬영이 끝나고, 우리 팀은 편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구성이 이미 되어있었기 때문에 편집은 순조로웠지만, 음향 및 자막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화가님이 뇌성마비 1급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터뷰 대사전달이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자막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음향부분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과 내레이션이 필요했다. 음악선곡 하는 것 만 100곡이 넘는 곡을 찾아보았고 이틀에 걸쳐 찾아낸 끝에, 어울리는 음악을 기어이 찾아내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입혀지고, 드디어 작품완성 기획에서 편집까지 한달가까이 힘들게 만든 작품에 애착은 갖지만 출품된 다른 작품의 완성도 또한 너무 높아서 솔직히 수상은 예상하지 못했다. 최우수상은 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드디어 수상작 발표가 나왔고 최우수상과 네티즌 상을 공동수상하게 되었다. 눈물나게 감사드릴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이윤정 화가님께 감사를 드린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꿈 이라는 큰 교훈도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작품을 애정을 가지고 심사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윤상현 (청운대 방송영상산업학과)

개국 10년, 공채 1기가 꿈꾸는 YTN

열정으로 헤쳐온 YTN 10년



이 광 엽 (사회1부)

2010년 4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봄 날. 남북문제 전문기자로 10년째 통일부를 전담해온 YTN의 일당백 기자. 아침에 출입처에 나가자마자 곧바로 시신을 TV로 돌린다. 새벽에 편집을 마친 특종기사의 어깨걸이가 눈에 들어온다. YTN의 아침 9시 뉴스를 통해 '북-미, 북한 핵 해결 비밀 합의' 리포트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광속도로 퍼지는 순간이다. 이 때 허둥지둥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다른 기자들. 저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려 퍼지면서 합창곡을 연출한다. 아침부터 데스크에게 깨진 기자들, 앞 다퉈 일당백 기자에게 물려간다.

그러나 일당백 기자는 이들을 대할 틈이 없다. 편집부로부터 YTN DMB에 곧바로 생방송으로 출연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기자실

에 설치된 위성 화상전화를 통해 YTN DMB 앵커와 얘기를 주고받는다. 리포트에 미처 담지 못한 기사의 깊숙한 배경 이야기를 토해낸다. 무려 10분 동안 아무런 원고 없이 진행되는 생방송이지만 이제는 이런 형태의 방송이 자주 되풀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생방송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인터넷 팀의 터줏대감인 대기자 선배가 긴급 메일을 보낸다. 이번 보도를 심층기사로 디지털YTN에 띄우려하니 나눠서 쓰자는 요구이다. 이번에는 YTN FM에서 정오 톱뉴스로 전화 연결을 하라는 주문이 쇄도한다. 이쯤 되자 FM에서 일하는 동기 녀석이 슬슬 미워진다. 오늘 점심도 혼자 늦게 빵으로 때우라는 얘기가 따지고 싶지만 '살아 있는 뉴스'를 만들려는 그의 열정에 꼭 참기로 한다. 2010년, 방송 15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뉴스 공장'으로 성장한 YTN 뉴스그룹은 열정이 식을 줄 모른다.

이 순간 일당백 기자는 15년 전 YTN의 출범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부 창립 멤버로 뛰느라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새로운 뉴스채널을 목이 아프게 알리고 다녔다. 개국 석 달 만인 1995년 6월,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터지자 건물 잔해를 걷어 내가며 생중계를 했다. 생방송은 무려 39시간 동안 이어졌다. 우리의 역동적인 화면은 CN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YTN이 한국 방송의 새 역사를 알리는 깃발을 꽂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뉴스의 중심축은 경제부로 옮겨갔다. 선후배들은 '대우 워크아웃 돌입'과 같은 특종들을 잇달아 터뜨렸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YTN 기자들에게는 오히려 '깨어 있는 뉴스'를 위한 기회로 다가왔다. 그러나 침몰하는 경제의 실상을 낚날이 해부하는 사이 회사의 공간은 바닥을 드러냈다. 무려 다섯 달 동안 월급통장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러한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YTN 뉴스공장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뉴스채널을 살리려는 눈물겨운 열정은 훗날 대규모의 자금을 수혈 받는 자양분이 됐다.

지금 일당백 기자에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명품뉴스를 쏟아내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직 남은 틀 그대로인 것이 못마땅하다. 보도국의 역량이 지식으로 축적이 되지 않은 까닭에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불만이다. 그렇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고 막강해진 매체력 덕분에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게 돼 뉴스채널의 기자로서 자긍심만큼은 대단하다. 특히 입사 6년째인 9기 후배를 보면 언제나 흡족하다. 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오늘 특종기사의 팩트를 함께 챙겼던 그가 벌써 속보를 보내왔는데 근사하다. 일당백 기자는 오후 방송의 틀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입가에 미소가 돈다. 오늘 데스크가 한 잔 쏘겠지.....

새내기 사건기자 수습기

YTN 9기! 우리는 신들린 수습기자



이 만 수 (사회1부)

2주간의 사내 연수를 마치고 경찰서에 투입되던 2월 2일 새벽. 뉴스 편집부 선배들과의 술 자리를 마치고 강서경찰서로 향했다. 철창이 드리워진 형사계 문을 폼 나게 열어 제친 것까지는 좋았다. 다음이 문제였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나는 결국 주취자 안정실에서 두어 시간 신세를 지고 말았다. 멍함도 없이, 달랑이는 회사 출입증과 비틀거리는 몸만으로 'YTN 기자'라 뽐내던 내 수습기자 생활은 이렇게 시작했다.

"왜 기자가 되고 싶어 했나?" 뿌연 정신이었지만, 형사계에 발을 들이며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질문 앞에 수습들은 면접관을 대하듯 각진 자세로 준비

한 답을 말하곤 했다. 모 수습은 '사회 정의 구현'이라 당당히 말했고, 어느 수습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부모님의 압박과 친구들의 안쓰러운 눈길을 견디고, 또 한편으로 피하며 졸업 후 일년을 버틴 난 '폼~~나게 살고 싶었다. 물론 선배들에게 이런 맹랑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어렵풋한 기억을 되살려 답하곤 했다. 그러나 기자가 되길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폼생폼사'였다. 늘 깨어 있으며 고민하는 직업. 명품 바바리덴, 냄새나는 와이셔츠 바람이든 현장을 제일로 하는 직업. 개개인의 토막 난 사연을 이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직업. 난 그제 기자의 역할이라 믿었고, '폼 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수습생활 두 달. 기자가 돼 폼 나게 살겠다던 나는 짧은 시간동안 적지 않은 경험을 했다. 형사계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던 30대 여성, 설날 아침 가족들 몰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할머니, 만취해 형사계에서 하룻밤 해결해야겠다던 청년, 이혼한 부모의 다툼으로 어린 나이에 형사계의 낯선 풍경을 맛닥뜨려야 했던 꼬마들부터 물어 볼 것 있으면 경찰관을 대동하러던 당돌한 수서역

장, 열차에 뛰어들었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재중국동포까지... 현장에서 취재원을 만나고 그들의 애환을, 변명을, 탄식을, 기쁨을 가장 먼저 듣는 기자는 역시, '폼 나는' 직업이다.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누구의 말도 경청해야 할 의무를 번갈아 가며, 난 YTN의 수습기자로써 오늘도 폼 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수습일지에 '산자와 죽은자의 사연을 잇기 위해 신들려 요령을 흔드는 영매. 그리고 세상 위에 선 모든 대상을 편견 없이 바라볼 줄 아는 기자는 비슷한 직업이 아닐까.'라고 쓴 적이 있다. 수습기자 13명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매가 작두에 올라타 신들려 요령을 흔들듯, 오늘도 우리 수습기자 13명은 힘든 줄 모르고 밤을 새며 온갖 사연을 취재수첩에 담는다. 그래서다. YTN 9기! 우리는 폼 나게 사는 '신들린 수습기자'다.

‘YTN인터내셔널’ 출범 1년

‘세계의 창’을 여는 인터내셔널 채널



3월 18일 인터내셔널 출범 1년을 기념한 자축연

이번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재외동포뉴스’를 ‘글로벌 코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제작 횟수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내용이 허접하면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텐데 신선하고 독특한 내용이다 다른 방송사에서는 흉내조차 못내는 콘텐츠여서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듯 하다.

하지만 오늘의 ‘재외동포뉴스’가 있기까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방송에 적합한 리포터를 구

하는 것에서부터 각 나라마다 방송 방식이 달라 촬영을 해도 컨버팅을 하면 화질이 최소한 20-30%가량 떨어지는 것까지...

여기에서 화면을 수신하는 방법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현지에서 급한 사건·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은 ‘잡초’ 근성으로 해외방송팀원들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그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냈다. 지금은 한 술 더 떠 본방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화상 전화까지 사용하며 전 세계 동포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YTN 인터내셔널 출범 1년은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갔다. 제작이면 제작, 송출이면 송출, 여기에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팀원들은 1인 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다. 이렇게 일을 한 때문일까, 채널 출범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해외방송팀을 쳐다보던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인터내셔널 출범은 너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방송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YTN은 한국의 YTN이 아니라 세계속의 YTN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 방송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YTN으로서는 해외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하나 둘씩 늘고 있는 해외 리포터는 결국 YTN의 귀중한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해외 방송 시간을 계획만큼 늘리지 못했고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해외 광고 등 회사 수익에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남긴 것도 사우 여러분에 미안한 부분이다. 그러나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올해 역시도 ‘잡초’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YTN이 ‘국내의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창’을 여는데 해외 방송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YTN 인터내셔널 채널 탄생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표완수 사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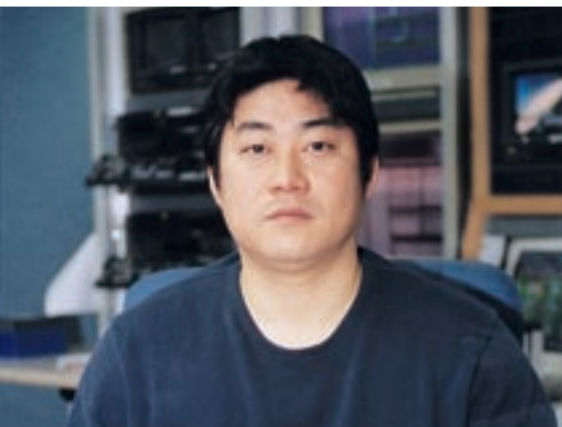
YTN 인터내셔널 파이팅!!



김 종 술 (해외방송팀장)

세계속의 YTN - 통신원에게 듣는다 ③

‘YTN 인터내셔널’ 동포사회 밝혀주는 햇불



박 태 환 (호주 시드니 통신원)

기억에 생생한 ‘명절 앞둔 날벼락’

작년 9월, 그러니까 코알라의 나라 호주에서 ‘YTN 인터내셔널’ 통신원 역할을 한 지 막 반년이 되는 무렵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에선 한창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는 상황이었을 당시 시드니 한 동포 가정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 남매와 부모가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참사 소식은 YTN 본방 뉴스 속보를 통해 두 차례 방송되었고 며칠 뒤 인터내셔널 재외동포뉴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소개되었다. 참혹한 화재 현장이 호주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되면서 주류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참사 원인을 놓고 한 때나마 시드니 주요 일간지들이 ‘방화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 참사 소식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시드니 한인사회를 또 한번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기억이 있다.

사체 감식 결과를 기다리며 참사 원인에 대해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던 상태에서 이날 가스폭발이 있기 전 부부싸움을 있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을 통해 신문들이 방화 가능성을 제기 한 것이다.

주도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은 ‘데일리 텔리그래프’였는데 이 신문은 특정 소수 민족 커뮤니티, 특히 중동계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신문으로 유명한데 이미 ‘센세이셔널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알려져 왔다. 개인적으로 올해로 약 3년 동안 시드니 동포 신문과 라디오 방송 기자로 활동하면서 종종 한인 커뮤니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을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기억이 새로운데 해당 기사에 대해 담당 기자의 입장을 들어보려 시도도 해보았지만 시원스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해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측에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 해보기도 했지만 이민 당국과 주류 언론을 자극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공관 측의 앵무새 같은 답변이었다. 결국 이래저래 한인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이미지 보도의 배경과 진실 여부도 따지지 못하고 넘어간 게 허다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내셔널 재외동포뉴스용 리포트 제작에 이곳 언론들의 무차별적인 횡포를 소개하면서 YTN과 재외동포뉴스의 영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방화 추측 가능성 기사에 대한 공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찾은 다음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방화 가능성 추측성 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해당 신문사 기사의 근거를 묻고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해외에 전달되는 재외동포뉴스 프로그램 방송 여파를 우려해 신속한 대응을 보인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결국 며칠 뒤 추측성 기사임을 인정하는 단신 기사가 나왔고 이후 후속 기사의 방향도 대폭 수정되어 보도되었다. 소수민족 언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YTN 이라는 매체가 가능하게 해 준 것이라고 본다.

‘동포사회 지적 구심점 되길……’

경험상 해외 주류 사회에 비치는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는 동포 개개인과 한국인의 위상과 직결돼 있음을 본다. 호주 동포사회는 40여년의 짧은 이민역사와 불과 7만여 남짓한 한인이 주류사회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 하고는 있지만 동포가 동포를 잡아먹는다는[속된 표현으로 ‘Kim eats Kim’]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한인 커뮤니티에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출범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YTN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지적 구심점 [Intellectual Leadership]으로 성공적인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670만 재외동포와 함께 나아가 할 비전을 제시하고 동포사회에서 주류 언론 견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면 한인 커뮤니티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년차 인터내셔널은 사명감 넘치는 해외 통신원들과 함께 동포사회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햇불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